

웅혼한 선불교의 '이상향'



◇구산선문을 세운 당시 선승들의 웅지와 기상을 짐작할 수 있는 성주사지.

가람의 장면들

요즘 TV에서 화제의 드라마로 꼽히는 것은 단연 '태조 왕건'이다. 후삼국의 혼란 속에서 고려라는 새 국가를 세우는 주인공 왕건은 개성의 유력한 호족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주, 나주, 충주 등 전국 각지에 유력한 호족들이 지역의 실세로 뽐내고 있었고, 그들의 배후에는 이념적·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는 승려들이 등장한다. 왕건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도선대사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신라말 불교계는 새로운 전황기를 맞게 된다. 화엄학이나 유식학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불교는 그 어려운 철학적 논리와 함께 수도 경주 일대의 귀족불교로 전개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호족이라는 사회 세력들은 중앙 귀족에 대한 반발과 함께, 귀족적인 교풍불교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다. 뜻있는 승려들은 중구로 유학하여 새롭게 개화되는 선불교에 몰입하였고, 귀족 후예는 경주를 떠나 전국 구석에 선종의 웅지를 틀게 된다. 이 가운데 중요한 9개의 문과를 일컬어 구산선문이라 부르게 된다. 9개의 선문 가람 가운데, 개산 당시의 모습을 일부나마 간직하며 현존하는 곳은 실상산 실상사, 가지산 보림사, 회양산 봉암사 정도다. 동리산 태안사나 사자산 용년사 등은 전혀 다른 가람이 되었고, 나머지는 폐허로 남거나 복원이 있었다. 그러나 현존 유지와 유구들만 살펴봐도 당시의 번성했던 모습과 웅장한 기상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대개 선문 가람들은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분지에 위치한다. 비록 산속이라

성주사지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말지라도 가람의 터는 광활한 평지에 잡았고, 넓은 절터에 수십, 수백동의 건물들이 가득했던, 산속의 수행 도시였다. 구산 가람의 주변 동네에는 아직도 그 광대했던 규모에 대한 정설이 전해온다. 예를 들어 식사 때마다 절에서 쫓겨온 불 드들이 개울을 따라 10리나 내려왔다는 식의 전설이다. 적어도 수백명의 스님들이 수행에 정진하며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선종가람이 산 속 경사지의 좁은 터에 3~4동의 건물로만 이루어졌던 웅색함과 전혀 판

석탑 3기 나란히 배열 선종특유 파격미 눈길

는 달리, 순간적 깨달음과 직관을 강조하는 선불교는, 비귀족 출신의 호족들에게 크게 어필하면서, 그들의 사상적 토대가 된다. 역으로 호족들은 지역의 중심 산문들을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보호라는 이중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왕건의 공성(현 전남 나주) 공력 과정에서 금성의 호족들을 견제할 때 왕건 편으로 이반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이는 가지산과 의암산사였다고 전한다. 그만큼 가지산문과 일대 호족들의 관계는 돈독했던 것이다. 각지에 알려졌던 여러 선문들 가운데, 9산으로 성정할 수 있었던 산문들은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다소의

공헌을 했던 곳들이라 추정된다. 이 가운데 성주산문의 분산이었던 대천 성주사는 현재 완전한 폐허로 터와 일부 석물들만 남아있다. 성주산문의 개산조는 신라말의 백월화상(801~888) 즉, 유명한 무염국사였다. 태종 무열왕의 8대손으로 태어난 왕족으로 청년기에 일찍이 당나라로 유학하여 법성, 화엄학은 물론, 중국의 선사들로부터 선지를 전수받게 된다. 백월화상의 행적을 적은 <남해화상 백월보광탑비(국보 8호)>는 성주사의 한켠에 서 있다. 신라말의 대석과 최치원이 글을 짓고, 동생인 최인공이 글씨를 쓴 비석으로, 당시의 글꼴체도나 정치체제 등을 연구하는데 무척 귀중한 자료다.

초창기 선문들은 엄격한 교회의 토대 위에서 수행의 방법으로 선을 수용했기 때문에, 가람의 구성은 기존 교종 사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합선수행에 필요한 선방 등이 발달한 정도의 차이 뿐이었다. 보림사나 실상사의 예를 보면 금당은 2층 내지 3층의 대규모 건물 이었고, 주변으로 회전을 두른 전형적인 교대 가람의 모습이었다.

성주사는 또 다른 거성을 지니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없어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땅 위로 노출된 유구들만 살펴봐도 그 특색이 드러난다. 금당 앞에는 높은 5층석탑(보물 19호)이 솟아 있는 것까지는 예의 가람과도 같다. 그러나 금당 뒤, 강당 뒤(추정) 앞에는 작은 3층석탑 3기가 옆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보물, 20·47호, 유형문화재 26호). 한 절에 중요한 4개의 탑이 있는 셈이며, 강당부는 특이하게도 이른바 3탑식 가람이다. 이런 경우는 성주사가 유일한 예다. 교종의 엄격한 가람 구성법을 따르면서도, 선종 특유의 파격과 개성을 드러내는 듯하다. 때로 건축은 집주인과 건축가의 개성을 담는다. 성주사의 폐허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한다. 또한, 새로운 불교,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간 당시 선승들의 웅지와 기상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절터이기도 하다.

불교조형물에 나타난 전통 문양 문/살



◇뛰어난 조각솜씨가 돋보이는 내소사 대웅전의 꽃살문.

법당은 불국정토의 영원하고, 행복하고 번뇌가 없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장중하고 화려하게 장엄을 한다. '진리의 집' 법당을 참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門)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법당의 문은 '진리'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입구를 나타내기 위해 역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한다.

대부분의 사찰에서 대웅전이나 극락전, 비로전 같은 중심 법당은 물론 관음전, 미륵전 등 보살전의 문쪽은 대개 빛살문이나 솟을빛살문, 또는 솟을빛살문 등 화려한 장식 문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찰 법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빛살문은 우물 정(井)자 문살을 45도 기울인 형태이며, 솟을빛살문은 빛살의 교차점을 관통하는 장식(수직 살대)을 하나씩 첨가한 것이다. 또 솟을빛살문은 솟을빛살문의 살에 여러 가지 꽃이나 추상문양을 새겨 넣어 훨씬 화려하다. 이처럼 법당을 화려한 꽃살문으로 장식하는 것은 스님들이 생활하는 요사채의 문막이 단순하고 검소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지금은 색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문양의 다양한 변화와 조화, 그리고 뛰어난 조각 솜씨가 돋보인다.

■금산사 대웅전의 문살
솟을빛살문 형식이며, 문살이 교차하여 형성된 육각형의 영역안에 꽃잎이 여섯장인 관음전 꽃을 새겼다. 붉은색, 푸른색, 흰색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었으며 같은 색의 꽃들은 일정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정수사 대웅전의 문살
보통의 문살이 사방연속문양의 배열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정수사 대웅전의 문살은 판자에 화병과 꽃



◇각 문살마다 화병에 꽃을 꽂은 형태의 정수사 대웅전 문살.

'극락입구' 울긋불긋 단장

빛 살 문 井자 문살 45° 기울여 장식
솟을빛살문 빛살 교차점 장식 덧붙여
솟을빛살문 빛살에 여러 꽃·문양 새겨

법당 문막 장식은 연꽃을 비롯하여 모란꽃, 국화꽃, 해바라기꽃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때로 정화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관념적인 형태의 꽃들도 찾아볼 수 있다. 꽃살문은 살대에 이런 꽃들을 새긴 문살을 사방연속식으로 짜 맞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꽃은 대개 6장의 꽃잎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 4장의 꽃잎으로 된 것도 있다. 또 꽃을 병에 꽂아 놓은 형태의 문양도 찾아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 병을 헌병(賢瓶)이라 하는데, 헌(賢)은 선(善)의 의미를 가지므로 선병(善瓶)이라고도 부른다. 또 보병(寶瓶), 만병(滿瓶), 감로병(甘露瓶), 덕병(德瓶), 김상병(吉祥瓶), 여의병(如意瓶)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성철사 나한전의 문살
문살 전체를 연인과 연꽃으로 가득 채우면서, 그 여백에 선승, 동자, 용, 물고기, 물새, 개 등 다양한 소재들을 사실적으로 조각해 놓았다. 민화에서 느낄 수 있는 순박함과 정겨움이 묻어난다.

■동학사 대웅전의 문살
병풍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동학사 대웅전의 문살은 사군자와 세한삼우(歲寒三友)를 투각하여 장식했다. 문인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난초와 매화는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지만, 사찰장식에서는 길상의 의미가 더 크다.

■내소사 대웅전의 꽃살문
16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사찰의 꽃살문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조각 솜씨가 정교하며, 불성을 깨우치는 단계를 꽃봉오리와 활짝 핀 꽃

이은자 기자

불자기업 해탈불상조성원 02-435-2626 / 017-799-7730

해탈불상 조성원은 모든 불사현장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천왕 : 천왕문이 없어도 법당내에나, 출입문, 벽에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 호신불로 스님방에 모실 수 있으며 천안에다 시조자 이름표를 달아드립니다. 불사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지극천왕



광목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



보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삼존불도 조성하여 드립니다. *

소지본 창업

비디오 영상편집 인터페이스

재택 창업

비디오 CD와 전자앨범 전문 제작용 TOOL

FireSpeed 400

- PCI 방식 (32bit 지원)
- 400Mbps의 빠른 전송 제공
- DV 3개 포트 제공
- 고성능 저가격 DV/IEEE-1394 비디오 캡처 카드
- 풀픽셀 입력 포맷 형식: DV, AVI, MPEG-1/1i
- 파일크기 제한 없는 그라픽 캡처 기능 제공
- Windows 98, 98se, 2000 지원

VCD Express

- 아날로그 (32bit 지원)
- 그라픽의 빠른 MPEG-1의 저장 방식
- 파일크기 제한 없는 그라픽 캡처, 편집 기능 제공
- 입출력 방식 Composite (RCA), S-Video 동시 지원
- Windows 98, 98se, 2000 지원
- 입력방식: MPEG-1



내맘대로 찍고
소프트웨어 없이 영상입력
신은 여형도 마음 놓고 찍자

FireSpeed 400P

- PCMCIA CardBus 방식 (32bit 지원)
- 400Mbps의 빠른 전송 제공
- DV 3개 포트 제공 (170N의 허브 제공)
- 고성능 저가격 DV/IEEE-1394 비디오 캡처 카드
- 풀픽셀 입력 포맷 형식: DV, AVI, MPEG-1/1i
- 파일크기 제한 없는 그라픽 캡처 기능 제공
- Windows 98, 98se, 2000 지원

Firewire Kit

- 고속 DATA 전송, 저장
- 400Mbps의 빠른 전송 제공
- Hot Swap 방식 지원
- 1394 지원하는 메인보드 지원
- Windows 98se 이상 지원
- Fire Box 와 1394 카드

제공 소프트웨어



VIDEO WAVE III SE (비디오 캡처 편집용)



Nero 5.0 (비디오 CD 제작용)



VIDEO STUDIO 4.0 (비디오 캡처 편집용)



PHOTO VISTA 1.0 (이미지 편집용)



FLIP ALBUM 3.0 (전자 앨범 제작용)



PHOTO SUITE III (이미지 편집용)

중고별 활용 : 인성, 삽입 등의 영상자료 편집 후 CD에 수록 및 배포
개인별 활용 : Video CD 제작, CD-Title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 동화상 데이터베이스, 전자앨범
기업별 활용 : 방송 시스템을 위한 솔루션, 멀티미디어 교육용 구축, 기업홍보물, 상품광고, 프로그래밍 등 제작
의료별 활용 : 임상사진 촬영 장비 발표시 활용

(주) 원이전산 02-703-8551~2 WWW.IEEE-1394.CO.KR
02-703-8561~2